



# 세계 속 K방산 위상 확인·강인한 군인정신 조명

국방TV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K방산의 위상을 확인하고,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쳐 탄생되는 공군조종사의 강인한 군인정신을 조명하는 등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편성했다.

**국방TV '본게임2'**는 '폴란드 MSPO 현장에서 K방산을 외치다!' 특집편을 선보인다. '본게임2'는 어렵고 딱딱한 무기체계를 군사 전문가와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두터운 밀리터리 마니아 시청자층을 확보한 국방TV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본게임2' 제작진은 올해 국군의 날을 기념하며 최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3) 현장 녹화를 진행했다. 전시회장에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는 물론 해외 대표 방산 기업을 밀착 취재하며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담았다. MSPO는 1993년부터 폴란드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방위산업전시회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주도국(Lead Nation)' 자격으로 참가했다.

## 국방TV 국군의 날 특집 방송

**본게임2 '폴란드 MSPO 현장에서...'**  
**방산 기업 밀착 취재하며 현장 열기 담아**

**병영의 달인 '살아서 돌아오라'편**  
**공군생환교육대 극한의 생존훈련**  
**6개월간 촬영하며 리얼한 영상 제공**

지난해 약 17조 원 규모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최전선국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230mm급 다연장로켓 '천무' 등 우리의 주요 무기체계가 'K2 GF(Gap Filler)' 'FA-50 GF' 등의 이름으로 이미 실전에 배치돼 있다. 방송에서는 폴란드군 관계자와 MSPO 조직 위원장의 입을 통해 K무기를 선택한 이유와 세계 주요 방위산업 트렌드를 '본게임2'만의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국방TV 개국 이후 첫 번째 해외 현장 녹화를 통해 제작된 '본게임2' 폴란드 특집편을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시청자와 함께함으로써 국방홍보기관의 소임을 다하는 국방TV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게임2' 폴란드 특집편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히스토리와 공동제작으로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2회에 걸쳐 국방TV와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국방TV '병영의 달인'**은 국군의 날 특집 다큐 '살아서 돌아오라'를 준비했다.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는 '병영의 달인'은 각 군 내 최강 능력자들을 통해 전문적인 군인의 세계를 담고 있는 휴먼다큐 프로그램이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살아서 돌아오라'편은 국군의 날 특집으로 기획된 다큐멘터리다. 공군생환교육대가 공중·지상·해상에서 펼치는 극한의 생존 훈련을 6개월에 걸쳐 촬영하며 리얼한 영상으로 담아냈다.

공군교육사령부 예하 공군생환교육대는 공군 조종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생환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교육하는 곳이다. 나라를 위해 살아 돌아오겠다는 굳은 신념을 다지는 생환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수료하지 못한 공군 조종사는 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예비 조종사인 공군사관생도부터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까지 반드시 거치고, 숙달해야 하는 중요한 훈련이다.

이날 방송되는 공군생환교육대에는 약 20명의 생환 교관들이 있다. 이제 막 하사로 임관한 젊은 청년부터, 생환 교육만 20년 넘게 한 백전노장까지 연차와 경험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생환 교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것. 생환 교관이 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방송에는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도 미룬 채 고공강하 훈련에 참여한 박병진 상사(진)처럼 교관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담겼다.

'병영의 달인' 국군의 날 특집다큐 '살아서 돌아오라'편은 오는 28일 오후 7시, 10월 1일 오후 5시, 10월 3일(화) 오후 7시 IP-TV 올레KT(260번), SK B-TV(263번), LG-U+(244번)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 인플루언서와 함께 한강변 달리며 호국보훈 의미 되새겨

방송인 최영재·인플루언서 임소영 등 국군의 날 앞두고 '기부 플로깅' 펼쳐 참가비 전액 326호국보훈연구소 기부

인플루언서들과 20~30대 청년들이 함께 한강변을 달리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군의 날을 일주일 앞둔 24일 청년 30여 명이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모였다. '호국보훈 기부 플로깅(Plogging·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한강변을 뛰거나 걸으며 페트병, 병뚜껑, 담배꽂초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3'에서 마스터 역할로 인기가 높은 방송인 최영재(예비역 육군소령)와 러닝 인플루언서 임소영(활동명 런

소다)이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 모집은 시작 30분 만에 마감됐으며 참가비는 전액 326호국보훈연구소에 기부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재를 비롯한 강철부대1·2 출연자 정해철·임우영·최용준·박도현·김태호, 임소영을 비롯한 인플루언서 전지은·장원경·윤희정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최영재는 "국군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여러 시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최원일(예비역 해군대령)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지난해 설립한 국가보훈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최 소장은 "후원금은 부상 장병들과 호국보훈의 가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승희 기자



24일 방송인 최영재가 한강변을 달리며 호국보훈 기부 플로깅을 하고 있다. 티어원브로스 제공

##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순위	영화명	관객수	누적관객수
1	잠	17만551	131만9901
2	가문의 영광: 리턴즈	7만1480	9만5269
3	그란 투리스모	5만3620	7만7890
4	오픈하이머	3만5144	317만1893
5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2만9252	19만1474
6	아르고 원정대: 꼬마 영웅 패티의 대모험	2만8406	3만9258
7	달짝지근해 : 7510	1만6672	137만1736
8	콘크리트 유토피아	1만4323	384만464
9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	1만3769	6만1902
10	플로라 앤 션	1만2007	1만3623

9월 22-24일 집계/영화진흥위원회 제공(단위: 명)